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및 교육만족도
: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전 은 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및 교육만족도
: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도 박은철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전 은 희

전은희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은 철 인

심사위원 박 소 희 인

심사위원 문 기 태 인



2015년 6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감사의 글

2013년 대학원 입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여년이 조금 넘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유 없이 바빠 지내느라 다 쏟아내 버린 느낌이 들 무렵,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고 배우고 싶은 갈망이 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 보자고 마음을 내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보니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가장 앞선 걱정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저녁 수업시간이 다가오면 수업에 늦을까 조바심으로 종종걸음 쳤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업무가 많은 날엔 대학원 수업을 듣고, 다시 늦은 시간 사무실에 돌아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쁜 시기였고 힘들었지만, 배우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으며 배움의 즐거움은 일상에서 또 다른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동기들과 만나 수업을 듣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논문이라는 결실을 맺는 지금, 이제 목표한 한 고비를 끝냈다는 시원함과 함께 이 길을 격려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먼저, 5학기 동안의 대학원 생활과 이 논문이 끝나기까지 학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 주신 박은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과서 이론으로서의 보건정책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 시에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부터 최종 논문심사에 이르기까지,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논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공교수님으로서 매 과목 열강 해주신 정우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부심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변변치 않은 글에 대해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박소희 교수님과 문기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 동안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 때 언제나 위안을 주시고, 용기와 가르침을 주신 이원희 국장님,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김기석 서기관님, 서명용 서기관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신 오상윤 서기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여러 선배님과 동료 선생님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진방울 대리님, 2년 반 동안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준 보건정책관리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큰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평소 전하지 못한 고마움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간 제가 알고 있던 가치들의 깊이가 더 깊어져 있음을 느끼고,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늘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엄마, 감사합니다. 부족함 많은 저를 아껴 주시는 시부모님,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직장생활과 육아, 학업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곁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남편 정도희氏와 삶의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들 재호, 재우에게 고마움의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2015년 6월

전 은 희

차 례

국문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고찰	6
1.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이론적 근거	6
2.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12
3. 선행연구	23
III. 연구 방법	26
1. 연구모형	26
2. 연구대상 및 자료	27
3.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28
IV. 연구 결과	31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2.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33
3.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38
4.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41
5. 사회공헌활동 실습참여자 현황 및 실습만족도	43

V. 고찰	50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50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52
VI. 결론	58
참고 문헌	61
부록	64
Abstract	91



표 차 례

표 1.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현황	16
표 2. 2011년~2014년 사업 비교	19
표 3.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21
표 4. 평가 항목별 설문내용	27
표 5. 주요 변수의 정리	30
표 6.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표 7. 참여자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34
표 8. 참여자 특성별 교육만족도	36
표 9. 참여자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37
표 10.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39
표 11.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42
표 12. 실습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13.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1)	46
표 14.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2)	47
표 15. 성별에 따른 실습만족도	49

그 립 차 례

그림 1. 베이비부머 선정을 위한 조출생률 추정	7
그림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
그림 3.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15
그림 4.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15
그림 5. 연구의 틀	26
그림 6. 연구대상 선정 흐름도	28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201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1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개발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령화된 베이비붐세대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및 교육만족도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13년 및 2014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중, 참여자 인적사항 및 기본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542명이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은퇴여부, 경제적 수준 등으로 하고, 교육과 관련된 특성변수를 사업 참여목적, 참여자의 은퇴 전 직종과 사회공헌활동 참여 분야 간의 일치 희망도, 교육연도 등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상관분석 및 T-test,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또한 사업연도 및 성별로 구분하여, 참여자 제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는 각각 94.8%(참여

의지 있음), 4.51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았다. 참여자의 연령, 교육수준, 교육 연도가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0.91배(OR=0.91, 95%CI=0.83, 1.00, p=0.0506) 감소하는 반면, 교육만족도는 증가하였다($\beta=0.0067$, p=0.3192).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고학력자일수록(대졸: OR=4.56, 95%CI=1.65, 12.60, p=0.0034, 대학원이상: OR=8.11, 95%CI=1.63, 40.50, p=0.0107), 교육만족도는 저학력자일수록 높았다(대졸: $\beta=-0.1061$, p=0.0947, 대학원이상: $\beta=-0.1578$, p=0.0584, ref=고졸). 또한 고소득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저소득자의 1.68배였으며(95%CI=0.68, 4.18, p=0.2646), 고소득자의 교육만족도는 저소득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200만원 이상: $\beta=-0.0988$, p=0.0936, ref=200만원 미만). 이는 향후 참여자의 학력 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많은 기관이 사회공헌활동처(수요처)로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및 실습을 운영할 표준화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4년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98.2%가 '있음'으로 응답) 및 교육만족도(4.59점)가 2013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91.4%가 '있음'으로 응답) 및 교육만족도(4.42점)에 비해 높았는데(p=0.0003), 이는 사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안정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컨소시엄기관 및 수요처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성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활동이 보다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참여자 실습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13점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좋은: 4.14점, 나쁨: 3.25점, p=0.129). 실습에 참가하기 전에 이루어진 1차 이론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실습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만족: 4.36점, 불만족: 3.61점, $p < .0001$),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습시간이 길수록 실습만족도도 증가했는데($\beta = 0.0022$, $p = 0.0384$), 이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공헌활동 실습기간의 확대 혹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들을 사회공헌활동 수요처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이 충분한 수준에서 안정화될 때 사업의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50대 베이비붐세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 이들이 65세 이후까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은 현실에서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면서,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실습 콘텐츠 개발·운영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한 베이비붐세대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교육만족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쟁 후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급상승한 195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층이다(2015년 현재 52~60세).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20만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업의 정년 연령인 55세에 달하기 시작하였고,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는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상당한 경제 사회적 과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아 은퇴 이후 질적으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금룡, 2011). 이러한 베이비부머가 보이고 있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자들이 노년기에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 20여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함을 의미하며, 짧지 않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적극적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유의미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나항진, 2004; 정순돌과 이은주, 2005; 김수정, 2006; 권미애와 김태현,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성 제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사회참여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9년 기준 55~64세 준 고령층의 고용률은 66.5%(통계청, 2009)로 OECD 평균 54.5%에 비해 높았으나(OECD, 2009), 2009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이며 65세 이상의 참여율은 5.3%에 불과하다(통계청, 2009). 미국의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0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65~74세 노인의 41.4%, 75세 이상 노인의 3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자원봉사 참가율은 53%('07년 기준), 캐나다의 경우는 같은 연령대 노인의 36%('07년 기준)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공헌 또는 자원봉사 활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은퇴지식인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개발하여 은퇴지식인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노령 인력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노인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45~49세의 경우 대졸자의 비율이 29.6%,

50~54세의 경우 18.5%인 반면 55~59세는 11.6%, 60~64세는 9.5%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으로 퇴직시기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시점 불일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동기간 연장되었지만,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은퇴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득하위 20%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남상호, 2011), 73.5%는 공적연금 평균수급액이 월 35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정경희, 2013). 베이비붐세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감안하면, 은퇴 이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베이비붐세대는 노후 생계에 문제가 예상된다.

베이비붐세대 중 다수는 은퇴 후 삶의 의미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아닌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김영숙 외, 2013).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가장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유지’(25.9%), ‘노후에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23.2%)의 순이었다(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2011).

베이비붐세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 세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 이전에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용하 외, 2011).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반드시 위협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자기관리로 은퇴 후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 생산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도 귀중한 인적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성취감과 일을 계속하려는 욕구가 있어 경제성장기를 주도한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원과 노후에도 일자

리를 희망하는 등 산업현장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베이비붐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 재교육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소비트렌드로 경제성장기 소비 경험, 여가, 문화,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정경희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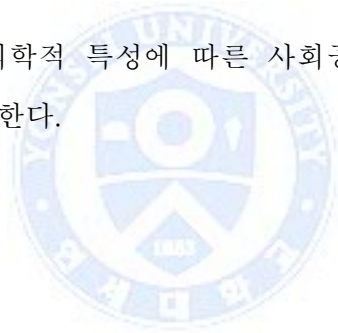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처(사회공헌활동기관)를 발굴하고, 퇴직자 중에서 사회참여 희망자를 발굴하여 교육한 후, 수요처와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베이비부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참여자 교육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여부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기본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의 영향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이론적 근거

가. 베이비붐세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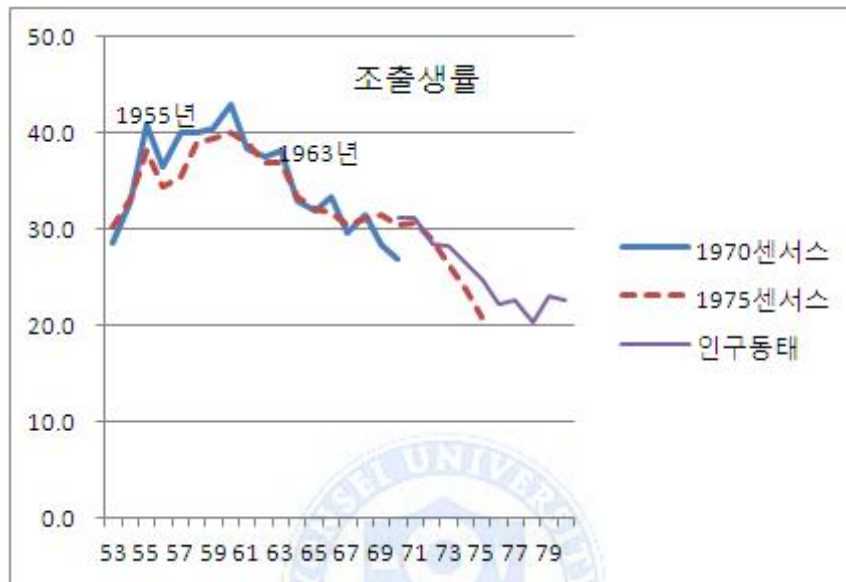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 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베이비부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하는데,¹⁾ 우리나라에는 1960년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추계나 인구동태 자료가 없어 베이비부머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어 인구센서스와 생명표를 이용해 1960년 이전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간접 추정하였다.²⁾

먼저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1955~1963년 조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

- 1)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2.94~3.76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1946~1964년생을 베이비부머로 부르고 있으며, 일본은 출생아 수 기준으로 1947~1949년생(806만 명)을 제1차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 1971~1974년생을 제2차 베이비붐세대(에코세대)로 보고 있음.
- 2) 추정방법: ①1970 및 1975년 5세 계급별 간이생명표의 정지인구(L_x)를 Beer의 공식을 이용해 각 세별 정지인구로 확장; ②1970 및 1975년 인구센서스 각 세별 인구와 ①에서 확장한 각 세별 정지인구를 이용해 연도별(1949~1975) 출생아수를 추정; ③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해 1949~1975년 인구를 추정(기하증가율로 내삽); ④추정된 자료를 이용해 1949~1975년 기간 중 조출생률을 계산; ⑤계산결과를 인구추계(1960~) 및 인구동태(1970~)와 비교하여 검증.

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로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베이비부머 선정을 위한 조출생률 추정
(자료 : 통계청, 2012)

만약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1955~1963년은 높은 출산율로 다른 연도에 비해 출생 코호트가 많았지만, 1968~1974년에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 수의 증가(특히, 1938~1950년 여성)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나 이를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로 구분하기도 한다(통계청, 2012).

나.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과 지원의 필요성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기점으로 향후 노령지식인의 공

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세대는 2015년 현재 52~60세에 해당되며 높은 출산율의 결과 인구구조상 돌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2010년 기업의 정년 연령인 55세에 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은퇴는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상당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아 은퇴 이후 질적으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 집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금룡, 2011). 베이비붐세대의 고졸비율은 2005년 현재 46.1%로 당시 50대의 고졸비율(33.5%) 보다 높았으며, 대졸 및 대학원비율도 28.5%로 50대(16.6%) 보다 훨씬 높았다(통계청, 2005). 한편 베이비붐세대의 경제, 건강영역의 노후준비 정도는 45~64세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다소 낮았다(이윤경, 2010).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노령지식인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개발하여 은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회활동 개념은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조직활동, 단체활동, 정치활동 등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포괄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경제활동 등과 같은 활동 범주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등과 같은 이론적 차원보다 실천적 차원에 가까운 개념으로(김수영 외, 2013), 사회공헌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소득활동은 물론 노인의 사회심리적 만족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참여는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공동이익을 옹호하는 조직활동, 종교활동,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노년기의 사회생활을 총망라한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인 것이다(윤종주, 1994; 이소정, 2009).

강민연과 김춘경(2010)은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노년기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상실의 시기'가 아닌 '창조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노인봉사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사회기여로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며 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노령지식인의 사회참여는 사회 전체에 걸쳐 팽배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편견(ageism)을 바로잡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자원(social resource)으로서 노령지식인의 가치가 발현되고, 노령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령지식인의 사회참여는 금전적 기부(charitable giving)와 더불어 사회지도층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재조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기, 2010; 김영숙 외, 2012). 즉, 자원봉사를 통해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함과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창조적이고 활발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욱(2012)은 노년기의 사회참여 활동은 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욕구충족과 노인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으며, 지역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한 이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며 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노인복지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투입한다면 소득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원봉사에 투입한다면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세대 간 이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의 결정요인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사회공헌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조선주 외, 2013).

그 동안의 국내외 논의들은 베이비부머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Putnam, 2000; Lunn et al., 2001; Rooney et al., 2001; 강철희, 2003; 박태규, 2004; Carmen, 2006; Bekkers and Wiepking, 2006; 강철희 외, 2008; 이현우 외, 2011; 박동준 외, 2013) 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관련 결정요인 중 연령이 중요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Byant et al., 2003; Havens et al., 2007; Feldman, 2007),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등에 관한 연구(손원익 외, 2008; 조선주 외, 2009) 등이 일부 수행되었다.

이처럼 상기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으며,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자원봉사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부터 기업의 정년연령인 55세에 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은퇴는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사회에 상당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숙 외, 2011).

아직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변화로 인한 특정세대나 집단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되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연구도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심층적인 연구보다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연구 중 일부조사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칭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의 계획기부가 개인기부의 중요한 동기로 대두되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유산기부와 다양한 자산기부를 포함하여 여생의 자산관리와 기부,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계획하는 계획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아름다운 재단, 2013; 조선주 외, 2013).

셋째,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거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될 수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조선주 외, 2009).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국가발전에 매우 큰 영향 미치는 중요한 가치이다(공인복, 2012). 영국은 시민사회계(자원봉사, 시민운동)와 ‘민-관 협약(Compact)’을 맺고 시민사회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모델을 본떠 전국 300여개의 지자체들도 모두 지자체 차원의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국가에서 타인과 정

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노인 자원봉사활동,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과 그 개념과 취지는 동일하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Rein & Salzman, 1995; Lawson, 1998; 김동배, 2000; 고양곤 외, 2003; 권중돈, 2008)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부도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법인)의 사회공헌활동과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의 정책을 수행할 뿐 개인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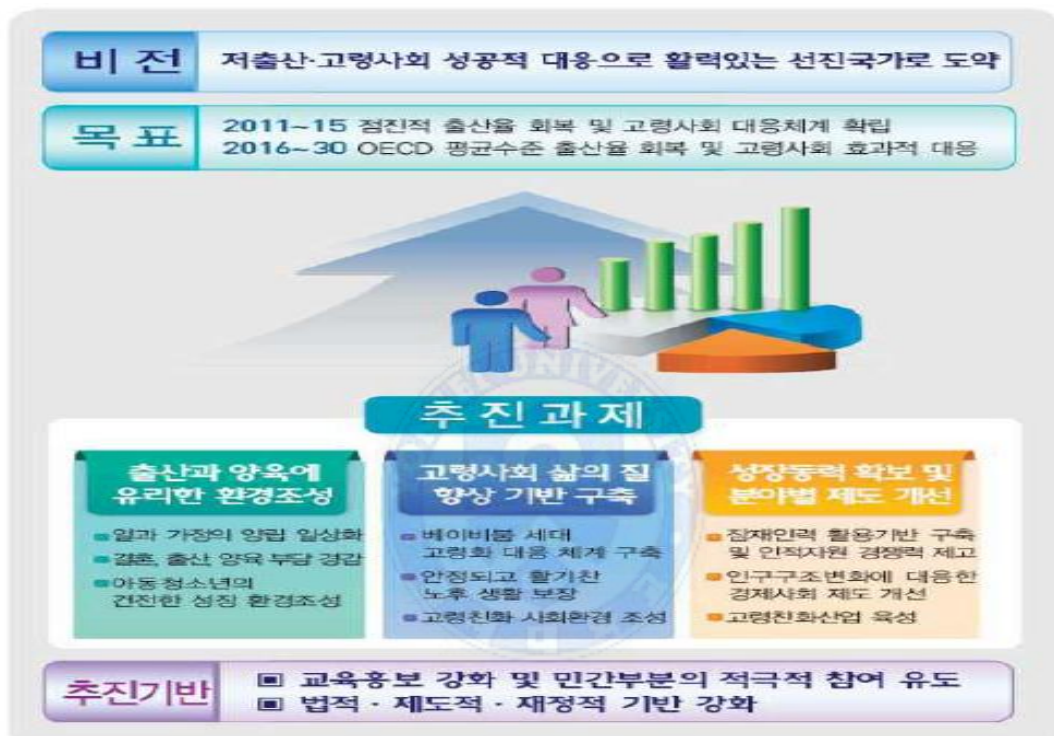


2.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고령사회 대책의 일부로 베이비붐세대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점진적 출산력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책 확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삶의 질 기반 구축’을 추진과제 목표로 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구체화된 세부추진 과제로 정하였다. 세 가지 정책과제에 포함된 세부 정책내용에는 경제적 목적의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 여가활동 증진이 포함되었다(그림 2).



<그림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

나.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개요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비영리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인력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령화된 베이비붐세대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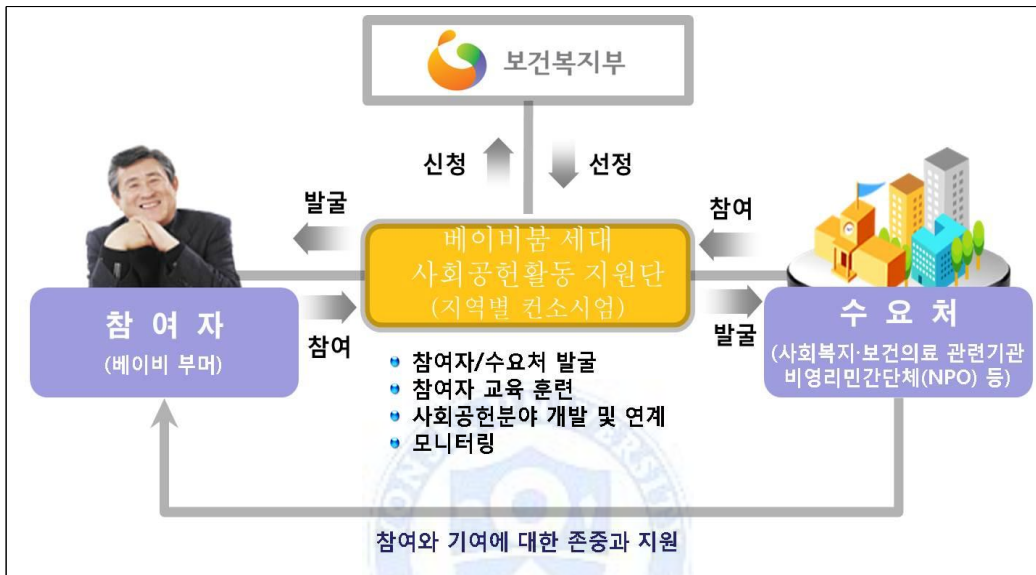
특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이들을 연계하여, 베이비부머인 당사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존감 제고와 정기적 활동으로 노후 건강 유지를 도모하고, 비영리기관 등은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어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여건이 마련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2011년에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TF)에서는 비영리기관 모임을 대상으로 회계·마케팅 등 전문적인 경영인력 수요처를 발굴하고, 비영리기관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퇴직자 중에서 참여자를 발굴하여 교육한 후,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사업지역과 예산을 확대하여 서울, 경기(인천포함), 부산지역에서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는 사업명에 '사회공헌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에게 소득보전이 목적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약 6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여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사회에 환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50~60대 초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자 선발 시 사회공헌활동 의지, 사업 이해도, 관련 자격증 보유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활동기관은 사회공헌형 일자리 수요처로 사회복지분야, NPO 등 시민사회단체분야, 보건 의료분야 등이 포함된다(표 1).

사업 수행주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주 사업자) 및 컨소시엄 기관이다. 참

여자 교육-연계-사후관리 실시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1인당 월 20만원, 수요처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월 5만원의 실비가 지원된다.



<그림 3>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구분	1단계 (모집·선발)	2단계 (교육)	3단계 (현장 실습)	4단계 (연계 및 사후관리)
주요 내용	설명회 통한 수요처, 참여자 모집·선발	기본교육 실시 ※ 직무교육은 실습처별 추진	사회공헌활동 현장실습	사회공헌활동 연계여부 결정 및 지속여부 확인
시 기	3~4월	5월 중순	6월~11월	8월~

<그림 4>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표 1>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현황(2013년)

구분	사회복지	NPO	보건의료	기타
서울 (인천 포함)	고령사회 고용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고용진흥원 ▶ 추억의 알개들 ▶ 실버문화복지협회 ▶ (사)희망도레미 ▶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 기부미결식아동지원센터 ▶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	-
한국 자원봉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실버뜨락 ▶ 광진재가노인지원센터 ▶ 마포노인복지센터 ▶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 우리모두재가노인지원센터 ▶ 전인복지센터 ▶ 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 ▶ (사)한국이름복지회 재가노인지원센터 ▶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 희망재가노인지원센터 ▶ 가톨릭서울형대이케어센터(혜화동) ▶ 하상장애인복지관 ▶ 참사랑지역아동센터 ▶ 해맑음한일지역아동센터 ▶ 금광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 단원구노인복지관 ▶ 중국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가게나눔교육팀 ▶ 아름다운가게 송파점 ▶ 조계중사회복지재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세상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사)살기좋은우리구 만들기여성회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 구로공단노동자체험관 ▶ 동작구자원봉사센터 ▶ (사)한국전문자원봉사센터 ▶ (사)글로벌교육문화 연구원(중복) 	-	-
부산 취업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 중구노인복지관 ▶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 남구노인복지관 ▶ 수영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 부산연세시니어클럽 ▶ 동구쪽방상담소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 부산광역시노인취업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색동어머니회 ▶ 부산법상공동체 연탄은행 ▶ 사단법인 예그리나 	-	▶ 문화컨텐츠개발원
부산 복지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벨노인복지관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부산점자도서관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울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부산복지개발원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정암(0)세누리교육문화원취업센터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옹구종합센터 ▶ 두송노인복지센터 ▶ 해누리노인복지공동체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 울산 문수실버복지관 ▶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대종합사회복지관 ▶ 마리아모성원 ▶ 울산중구노인복지관 ▶ 울산북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동래구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 인권문제연구소 ▶ 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	▶ 부산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경기	의정부	▶ 성민노인복지센터	▶ (사)글로벌교육문화	▶ 의정부보건소 ▶ 회원1동 주민센터

실버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노인복지센터 ▶ 송산실버문화센터 ▶ 위드위주간보호센터 ▶ 의3동노인주간보호센터 ▶ 의정부시니어클럽 ▶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 의정부실버문화센터 ▶ 녹양노인복지센터 ▶ 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 ▶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동두천시노인복지관 ▶ 함께하는우리 ▶ 동산노인복지관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아낌없이주는나무지역아동센터 ▶ 난향지역아동센터 ▶ 미래복지센터 ▶ 대치노인복지센터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 의정부영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중복) ▶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일자리상담지원센터 	▶ 명화극장
--------	---	---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나. 그간 추진경과

1) 2011년

2011년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자 중심의 사회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내용은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에게 사전교육으로 36시간의 이론교육과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 제공되었고, 3주간의 사회공헌활동(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2) 2012년

2012년에는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서울, 인천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 대상지역을 경기와 부산으로 확대하여 총 4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예산도 전년대비 약 2배가 증액되었다. 2011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통 이론교육시간의 축소 및 참여자 지원비 신설 등의 사업변화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범사업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주관기관이 추구하던 사회공헌활동의 방향과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의 기대간의 일치도가 다소 낮은 등, 소위 수요(참여자가 희망하는 기관)-공급(실습 기관) 간의 미스 매칭 현상이 현저하여 사업의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3) 2013년

2013년에는 2012년 사업평가 결과 제안된 정책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이 개편되었다. 수요처를 먼저 발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연계율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기존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실습 기간이 각기 다른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습 지원기간을 수요처 특성에 맞게 2~5개월로 탄력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사회참여’의 의미 중 소득보전의 성격을 제외하기 위해 사업의 키워드를 “사회공헌활동”으로 바꾸고,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에게 소득보전의 이미지가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모집과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과 달리, 지역별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서울 2곳, 경기 1곳, 부산 2곳) 사업을 진행했으며, 기존에 주관기관이 수요처를 개발하고 일방적으로 참여자들을 배치시키던 것을 컨소시엄 기관이 직접 수요처를 발굴하여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시도하였다.³⁾

3) ‘주관기관’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말하며, ‘컨소시엄기관’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기관을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

4) 2014년

사업범위를 5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으로 확대하였고, 교육과 실습의 콘텐츠에 더 주력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 사업평가 시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의 전략모델사업으로 제안했던 ‘베이비부머 전문상담자 중심의 고령자 상담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두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 트랙은 원래 사업의 형태인 지역의 수요처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기관이 주도하면서 연계된 수요처에 베이비부머들을 파견하여 실습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였고(서울·경기와 부산 일부), 또 다른 한 트랙은 2013년 대도시중심의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모델로 선정된 ‘노후설계상담사’의 확산을 위해 ‘시니어사회참여지원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추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부산 일부, 인천, 광주)에서 사례관리자로서 노후설계 상담역할을 수행하였다(표 2).

<표 2> 2011~2014년 사업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명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사업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예산	335백만원	690백만원	690백만원	690백만원
지역	서울, 인천	서울, 경기(인천), 부산	서울, 경기(인천), 부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모집인원	목표 250명 달성 255명(102%)	목표 600명 달성 638명(106.3%)	목표 600명 달성 694명(116%)	목표 600명 달성 689명(115%)

한국자원봉사문화, 의정부노인복지관,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부산복지개발원 5개 기관이 해당된다.

‘수요처’는 실습기관으로 혼용되며, ‘컨소시엄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은 베이비부머들이 실습을 받으면서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하는 곳이다. 수요처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들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포함된다.

교육 인원	204명 (모집인원의 80%)	638명 (모집인원의 100%)	570명 (모집인원의 84.6%)	614명 (모집인원의 89.1%)
실습 인원	198명(77.6%)	486명(76.2%)	목표 500명 / 달성 570명(114%)	목표 500명 / 달성 608명(121.6%)
사회 참여 연계 인원*	54명	목표 200명 달성 216명(108%)	목표 250명 달성 271명(108%)	목표 250명 달성 391명(156.4%)
수요 처수	37개	90개	123개	121개
교육 시간	46시간 (이론 36H, 6일 / 워크샵 10H, 1박2일)	20시간 (소양 5H, 필수 15H / 4일)	10~25시간 (기본 5H, 1일 / 직무 5~20H) *직무교육은 수요처별 실시(평균 6.6시간)	10~25시간 (기본 5H, 1일 / 직무 5~20H) *직무교육은 수요처별 실시(평균 12시간)
사업 운영 형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접 수행 (한양대 교육과정 개발 위탁)	지역별 협력체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연대은행, 부산 시노인취업교육센터, 군포시니어클럽, 의 정부실버문화센터	컨소시엄 체계 구축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한국자원봉사문화, 부 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부산복지개발원, 의정부 실버문화센터	컨소시엄 체계 구축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

* 사회참여연계인원은 사회공헌활동 지원비 지급이 종료된 후, 수요처와 참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사회공헌활동이 지속된 인원을 의미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다.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해외사례

미국은 국가에서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관리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인(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이 Senior Corps(고령자봉사단)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고령자봉사단은 자원봉사자 자격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enior Corps는 Domestic Volunteer Act를 법적근거로 하여 위탁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FGP), 고령자간병인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 퇴직고령자

자원봉사프로그램(Retire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하나의 법체제로 결합되어 있다. 미국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무보수성 원칙이 일반적인데 위탁조부모프로그램, 고령자간병인프로그램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GP와 SCP는 주당 15~40시간의 봉사활동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시간당 2.65달러의 경제적 지원과 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퇴직고령자 자원봉사프로그램(RSVP) 역시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조직인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통비, 식비 등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주된 봉사내용은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지도, 장애인의 소외계층에게 말벗서비스, 거동불편노인 차량지원서비스, 환경개선사업이다(권중돈 외, 2010; 김수영, 2014).

<표 3>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Senior Corps)

구분	FGP	SCP	RSVP
참여자격	55세 이상 노인	55세 이상 노인	55세 이상 노인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멘토 프로그램 • 책읽기, 학습지도, 말벗, 장애아동 등 지원 • 나이 어린 부모에게 양육기술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위한 병원예약, 교통편의, 물품구입, 말벗 서비스 제공, 식사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아동 및 소년원 수감 아동을 위한 멘토 및 학습지원, 노인의 독립생활지원,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 순찰, 비영리조직 역량강화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중 보험가입 • 오리엔테이션, 교육훈련, 교통비 및 식사비 지원 • 저소득 참여자(빈곤선 120% 이하)의 경우 시간당 수당지원(시간당 2.65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노인성 질환 등 교육훈련 • 저소득 참여자(빈곤선 120% 이하)의 경우 시간당 수당(시간당 2.65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교육훈련 • 활동기간 중 보험가입 • 활동 중 교통비, 식사비 지원
봉사활동 시간	주당 15~40시간	주당 15~40시간	주당 15~40시간

(자료 : 김수영, 2014)

영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 Prime Times는 영국에서 대표되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이다. 지역 사회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에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시니어에게 제 3섹터에서 컨설턴트로 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RVS(Women's Royal Voluntary Service)라는 고령자 자원봉사자를 통해 민간조직도 배달서비스, 교통도우미 서비스, 도서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이다. Reach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전문퇴직자에게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지원 기관이다. 일본은 시민주체 활동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Community Business(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며 NPO법(특별영리활동촉진법)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특징적이다(김수영, 2014).

싱가포르는 공적, 사적 기업에서 중역으로 은퇴한 전문 시니어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컨설팅 용역 또는 정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세미나 등의 운영 용역을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수주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김영숙 외, 2011).

3. 선행연구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 태어난 세대로서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산업 사회로 이행시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추적인 세대이며, 사회적으로는 부모세대의 봉양과 자식세대 부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민주화로의 급속한 변화를 책임져 왔다. 이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은퇴 후를 위한 은퇴준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나일주 외, 2008). 그러므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문제는 베이비붐세대 개인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활동 및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택 등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연금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측면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보고서들이 대부분 이고(나일주 외, 2008), 베이비붐세대의 현황을 파악하는 생활실태조사 정도가 주를 이룬다(한경혜 외, 2010; 정경희 외, 2011).

즉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약 712만명의 인구집단에 대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저출산·고령화의 고용관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방하남, 2010), 경제적 문제를 다룬 국민연금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정의신, 2010)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 연구(강성호, 2011) 및 은퇴와 고용유지 방안연구(이철선, 2010) 등 노후소득방안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외에 주요 연구로는 노인들의 단순일자리에 관련된 연구(윤형중 2008)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된 소득보전 측면이나 건강적 측면과 같은 경제적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사회참여 활동 수준은 낮으나 은퇴이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49.5%)

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은퇴와 함께 사회참여를 하는 방안 등에 관한 비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 욕구 및 문제 해결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비노인층인 베이비붐세대 또는 고학력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하였다. 현 세대 노인들의 특성과는 다른 성향의 베이비붐세대들이 앞으로 노인층에 포함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및 자원봉사 영역의 활성화 관련 연구들이 있다(이석훈 외, 2008; 박상복, 2010; 변루나 외, 2011; 정진경 외, 2011).

이소정 외(2011)는 제3섹터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베이비붐세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3섹터가 가진 특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령자를 제3섹터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인데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능력(OA)에 대한 교육, 조직적응 및 융화를 위한 대인관계 기술 훈련, 제3섹터에 대한 이해 교육, 그리고 현장 실무 학습 등의 교육내용이 고령자의 제3섹터형 일자리에의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첫 번째 연도에는 사업 수행 첫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과 구성요소,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김영숙 외, 2011), 두 번째 연도에는 2011년 평가결과 및 관련 사업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진행되었다(김영숙 외, 2012). 세 번째 연도에는 사업수행의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기존 평가모형을 활용하면서, 사업의 연계율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김영숙 외, 2013). 그간의 평가 연구는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잡고 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단위 연도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 대비 달성정도를 파악하는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사회공헌활동 지속성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사업방식에 대한 한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활성화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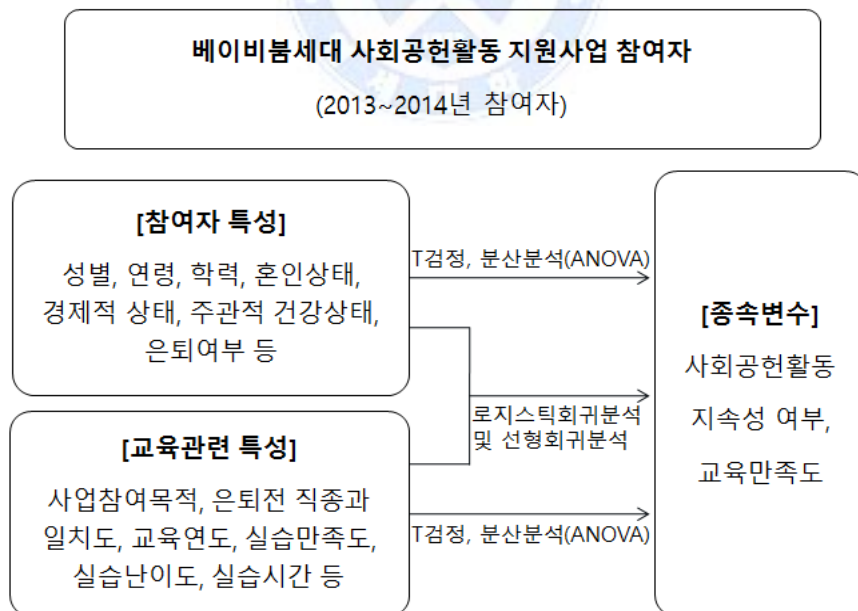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기본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육 이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참여자의 특성이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나 교육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의 틀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의 틀

2. 연구대상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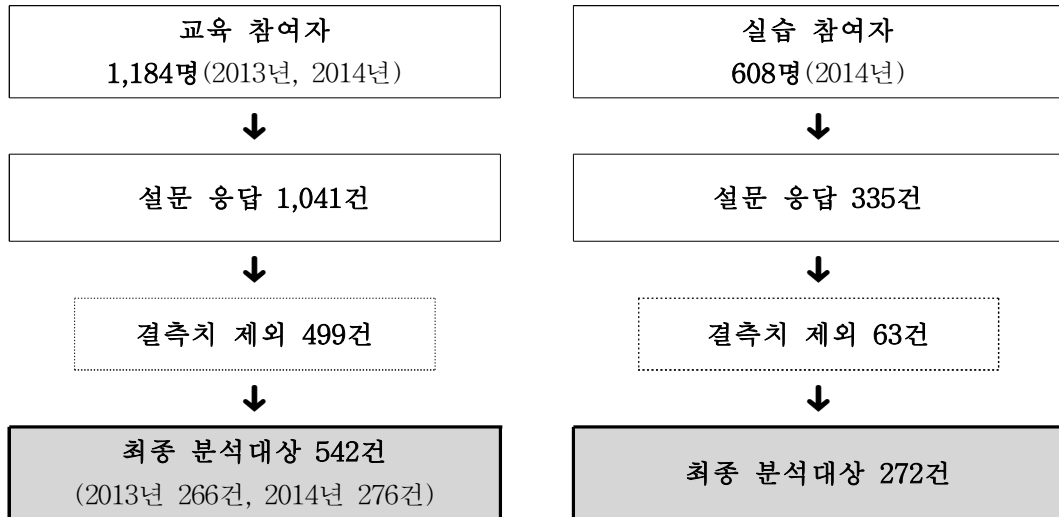
연구대상은 2013~2014년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542명이다. 참여자 조사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완료 시점 및 사회공헌활동 실습 참여 완료 시점 각각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협조 하에 교육 참여자 수만큼의 설문지를 각각의 교육장소 및 실습 수요처에서 참여자에 배포하여,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3년 및 2014년에 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론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570명, 614명으로 총 1,184명이었고,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각각 489명, 552명으로 총 1,041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항에 대해 모두 작성된 1차 설문자료 542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는 2014년 참여자의 설문자료 335건 중 각 변수들에 대한 무응답, 결측치가 존재하는 응답자는 제외한 27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6).

설문내용은 참여자들의 인적특성과 함께 <표 4>와 같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표 4> 평가 항목별 설문 내용

평가분야	평가 항목
수요	사업 목적에 대한 참여자 이해도
모집	참여자 모집 방식의 효과성
교육 및 실습	참여자 만족도
사후관리	참여자의 사후관리 수요 반영 여부
만족도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실습의 도움정도



<그림 6> 연구대상 선정 흐름도

3.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2년간의 참여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참여자의 향후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여부 및 교육만족도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참여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조사된 참여자의 특성 변수인 교육관련 변수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은퇴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관련 변수는 사업 참여목적, 교육연도,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교육의 중요도, 실습난이도, 이론교육만족도, 실습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실습시간 등으로 하였다. 사업 참여목적 조사 시,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한 이유와

이 사업 자체의 사업목적은 소득보전과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참여자 본인의 생각과 사업목적 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5).

참여자 특성과 참여자 설문조사 항목을 기술통계 분석하고,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간의 관계 및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T-test,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또한 사업 연도를 구분하여 참여자 제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참여자를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5> 주요 변수의 정리

	변수	정의
독립변수	<참여자 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만)	연령(만)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혼인상태	기혼, 미혼
	경제적 상태(월 평균소득)	2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은퇴여부	예, 아니오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나쁨
	과거 자원봉사참여유무	예, 아니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예, 아니오
	<교육관련 특성>	
	참여목적	지식과 경험의 사회환원(%)+소득보전(%)=100%
	은퇴전 직종과의 일치 희망도	50% 이상, 50% 미만
	교육연도	2013년, 2014년
	교육의 중요도	실습교육, 이론교육
	실습난이도	쉬움, 어려움
	이론교육만족도	5점 척도
실습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실습시간	실습시간(시간)	
종속변수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여부	예, 아니오
	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3~2014년 참여하였던 베이비부머 중 설문에 응답한 542명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1차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상태, 은퇴여부, 사업 참여목적, 은퇴 전 직종과 사회공헌활동 참여분야와의 일치도, 교육연도 등으로 구분 확인하였다.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59.2%)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참여자 평균 나이는 58.3세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6.7%, 대학원 이상이 18.5%로, 전체 65% 이상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54.1%, 200만원 미만이 45.9%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88.4%가 기혼자, 11.6%가 미혼자였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은퇴자가 87.5%, 직업이 있는 경우가 12.5%였으며, 이 사업 참여목적이 '소득보전'인 경우가 31.5%, '지식과 경험의 사회환원'이 68.5%를 차지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다수는 사회공헌이 지식과 경험의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은퇴 이전 종사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곳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50%이상 일치 희망자가 59.6%를, 50%미만이 40.4%로, 은퇴 전 업무적으로 축적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참여자는 266명(49.1%), 2014년 참여자는 276명(50.9%)이었다(표 6).

<표 6>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평균±표준편차)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21	40.8
	여	321	59.2
연령		58.3	±4.31
교육수준	고졸	189	34.9
	대졸	253	46.7
	대학원 이상	100	18.5
소득	200만원 이상	293	54.1
	200만원 미만	249	45.9
혼인상태	미혼	63	11.6
	기혼	479	88.4
은퇴여부	예	474	87.5
	아니오	68	12.5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171	31.5
	사회환원	371	68.5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323	59.6
	50% 미만	219	40.4
교육연도	2013	266	49.1
	2014	276	50.9
계		542	100.0

2.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가.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표 7>, <표 9>와 같다. 2013~2014년 참여한 베이비부머 542명 중 514명(94.8%)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속 참여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남성의 96.4%, 여성의 93.8%가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p=0.1772$). 참여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0.91배 낮아졌다($p=0.0506$).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는 4.56배(95%CI=1.65, 12.60, $p=0.0034$),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8.11배(95%CI=1.63, 40.50, $p=0.010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고, 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 기혼자의 95.4%, 미혼인 참여자의 90.5%가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p=0.0965$).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참여자 중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98.2%로 전년도 대비 6.8%p 증가하였는데($p=0.0003$),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참여자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단위 : 명(%), 평균±표준편차)

변수	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P-value
			있음		없음		
성별							
남	221	40.8	213	96.4	8	3.6	0.1772
여	321	59.2	301	93.8	20	6.2	
연령	58.3	±4.31	58.2	±4.31	59.4	±4.31	0.1786
교육수준							
고졸	189	34.9	169	89.4	20	10.6	0.0002
대졸	253	46.7	247	97.6	6	2.4	
대학원 이상	100	18.5	98	98.0	2	2.0	
소득							
200만원 이상	293	54.1	277	94.5	16	5.5	0.7367
200만원 미만	249	45.9	237	95.2	12	4.8	
혼인상태							
미혼	63	11.6	57	90.5	6	9.5	0.0965
기혼	479	88.4	457	95.4	22	4.6	
은퇴여부							
예	474	87.5	448	94.5	26	5.5	0.3754
아니오	68	12.5	66	97.1	2	2.9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171	31.5	159	93.0	12	7.0	0.1861
사회환원	371	68.5	355	95.7	16	4.3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323	59.6	305	94.4	18	5.6	0.6034
50% 미만	219	40.4	209	95.4	10	4.6	
교육연도							
2013년	266	49.1	243	91.4	23	8.6	0.0003
2014년	276	50.9	271	98.2	5	1.8	
계	542	100.0	514	94.8	28	5.2	

* 카이제곱검정

나. 참여자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참여자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표 8>, <표 9>와 같다. 2013~2014년 참여한 베이비부머가 실습기관에 배치되기 전 받은 사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총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높았다. 남성이 4.50점, 여성이 4.51점으로, 성별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1772$).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다(200만원 이상: $\beta=-0.0988$, $p=0.0936$, ref=200만원 미만). 미혼 참여자가 기혼 참여자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았다(미혼: $\beta=0.0546$, $p=0.5326$, ref=기혼).

참여자 교육수준은 교육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고졸자의 교육만족도는 4.55점, 대졸자는 4.49점, 대학원이상 졸업자는 4.48점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다($p=0.0002$). 이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가 대졸 이상 참여자에 비해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의 학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의 교육만족도 4.42점에 비해 2014년은 0.17점 상승한 4.59점으로, 교육연도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p=0.0003$),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참여자 특성별 교육만족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교육만족도		P-value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4.50	±0.65	0.1772
여	4.51	±0.62	
교육수준			
고졸	4.55	±0.61	0.0002
대졸	4.49	±0.62	
대학원 이상	4.48	±0.70	
소득			
200만원 이상	4.47	±0.66	0.7367
200만원 미만	4.56	±0.59	
혼인상태			
미혼	4.54	±0.68	0.0965
기혼	4.50	±0.63	
은퇴여부			
예	4.51	±0.63	0.3754
아니오	4.50	±0.67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4.43	±0.68	0.1861
사회환원	4.54	±0.61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4.55	±0.61	0.6034
50% 미만	4.45	±0.67	
교육연도			
2013년	4.42	±0.68	0.0003
2014년	4.59	±0.57	
계	4.51	±0.63	

* T-test, ANOVA

<표 9> 참여자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변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교육만족도	
	OR	95% CI	P-value	β	P-value
성별					
남	1.22	0.47 3.17	0.6818	-0.0576	0.3390
여	1.00	- -		Ref	-
연령	0.91	0.83 1.00	0.0506	0.0067	0.3192
교육수준					
고졸	1.00	- -		Ref	-
대졸	4.56	1.65 12.60	0.0034	-0.1061	0.0947
대학원 이상	8.11	1.63 40.50	0.0107	-0.1578	0.0584
소득					
200만원 이상	1.68	0.68 4.18	0.2646	-0.0988	0.0936
200만원 미만	1.00	- -		Ref	-
혼인상태					
미혼	0.65	0.22 1.86	0.4158	0.0546	0.5326
기혼	1.00	- -		Ref	-
은퇴여부					
예	0.57	0.13 2.60	0.4706	-0.0254	0.7581
아니오	1.00	- -		Ref	-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0.73	0.31 1.71	0.4711	-0.1184	0.0485
사회환원	1.00	- -		Ref	-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0.55	0.23 1.29	0.1695	0.1014	0.0710
50% 미만	1.00	- -		Ref	-
교육연도					
2013년	1.00	- -	0.0020	Ref	-
2014년	4.97	1.80 13.70		0.1679	0.0022

*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3.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를 2013년과 2014년도 참여자를 구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결혼상태, 은퇴여부, 사업참여목적, 은퇴전 직종과의 일치도로 구분하여 보았다.

가.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2013년 참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0.83배 낮아졌고(95%CI=0.72, 0.95, $p=0.0063$), 2014년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의지는 1.59배 증가하였다(95%CI=1.02, 2.46, $p=0.0389$). 두 해 모두 참여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공헌사업 참여의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참여자의 교육수준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를 살펴보면, 고졸자에 비해 대학교 졸업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7.89배(95%CI=2.02, 30.83, $p=0.0030$), 대학원이상 졸업자는 7.38배(95%CI=1.37, 39.84, $p=0.0202$)로 높았다. 소득이 낮은 참여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참여자의 사회공헌사업 참여의지가 2.01배 높았다(95%CI=0.69, 5.82, $p=0.2$).

2013년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중, 참여목적이 '소득보전'인 참여자가 '지식과 재능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비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0.8배 낮았는데(95%CI=0.30, 2.11, $p=0.6454$), 2014년도 참여자에서는 반대양상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10).

<표 10>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교육년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교육만족도			
		2013				2014				2013		2014	
변수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β	P-value	β	P-value			
성별	남	1.33	0.43	4.11	0.6152	0.27	0.02	4.48	0.3592	-0.1365	0.1536	0.0192	0.8075
	여	1.00	-	-	-	1.00	-	-	-	Ref	-	Ref	-
연령	고졸	0.83	0.72	0.95	0.0063	1.59	1.02	2.46	0.0389	0.0004	0.9739	0.0141	0.0956
	대학원 이상	1.00	-	-	-	1.00	-	-	-	Ref	-	Ref	-
교육수준	대졸	7.89	2.02	30.83	0.0030	2.89	0.32	25.75	0.3426	-0.0582	0.5547	-0.1514	0.0677
	200만원 이상	7.38	1.37	39.84	0.0202	- ¹⁾	<0.001	- ¹⁾	0.9640	-0.1562	0.2443	-0.1727	0.1019
소득	200만원 미만	2.01	0.69	5.82	0.2000	0.91	0.13	6.42	0.9212	-0.0322	0.7242	-0.1576	0.0431
	미혼	1.00	-	-	-	1.00	-	-	-	Ref	-	Ref	-
결혼상태	기혼	0.80	0.24	2.64	0.7153	0.30	0.03	3.61	0.3413	0.0855	0.5030	0.0485	0.6904
	예	1.00	-	-	-	1.00	-	-	-	Ref	-	Ref	-
은퇴여부	아니오	1.00	0.20	5.07	0.9986	<0.001	<0.001	- ¹⁾	0.9688	-0.0112	0.9307	-0.0806	0.4525
	예	1.00	-	-	-	1.00	-	-	-	Ref	-	Ref	-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0.80	0.30	2.11	0.6454	1.09	0.11	11.32	0.9406	-0.2275	0.0128	0.0274	0.7309
	사회환원	1.00	-	-	-	1.00	-	-	-	Ref	-	Ref	-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0.76	0.30	1.98	0.5795	<0.001	<0.001	- ¹⁾	0.9532	0.1483	0.0848	0.0591	0.4178
	50% 미만	1.00	-	-	-	1.00	-	-	-	Ref	-	Ref	-

*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¹⁾: 해당 셀 값에 0이 있어 의미가 없는 값으로 표기하지 않음

나. 연도별 교육만족도

2013년 참여자의 교육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42점이고, 2014년 참여자의 교육만족도는 4.59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2013년도에는 여성의 교육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았고(남성: $\beta=-0.1365$, $p=0.1536$, ref=여성), 2014년도에는 남성의 교육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남성: $\beta=0.0192$, $p=0.8075$, ref=여성). 두 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2013: $\beta=0.0004$, $p=0.9739$, 2014: $\beta=0.0141$, $p=0.0956$).

참여자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는 2013년, 2014년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2013년 대졸자: $\beta=-0.0582$, $p=0.5547$, 대학원 이상: $\beta=-0.1562$, $p=0.2443$, ref=고졸자). 다만, 2014년도에는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고졸 학력자에 비해 대졸 이상자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대졸자: $\beta=-0.1514$, $p=0.0677$, 대학원 이상: $\beta=-0.1727$, $p=0.1019$, ref=고졸자), 향후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추가 분석하고,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이 좀 더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해 모두 은퇴자의 교육만족도가 비은퇴자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다(2013 은퇴자: $\beta=-0.0112$, $p=0.9307$, 2014 은퇴자: $\beta=-0.0806$, $p=0.4525$, ref=비은퇴자). 2013년도에 소득보전을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경험의 사회환원에 목적을 두고 참여한 사람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낮았다(소득보전: $\beta=-0.2275$, $p=0.0128$, ref=사회환원). 2014년에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소득보전: $\beta=0.0274$, $p=0.7309$, ref=사회환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10).

4.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2013년~2014년 참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참여자의 제 특성별(연령, 교육수준, 소득, 결혼상태, 은퇴여부, 사업참여목적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를 살펴보았다(표 11). 남성은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1.03배 증가(95%CI=0.81, 1.30, $p=0.8339$), 여성은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지가 0.84배 정도 감소하였다(95%CI=0.73, 0.96, $p=0.0125$). 남녀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를 분석해 보면, 남성은 소득구간에 따라 참여의지가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참여의지가 약 2.77배 높은 경향이 있었다(95%CI=0.83, 9.24, $p=0.0970$).

교육수준에 따른 남녀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를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는 2.95배(95%CI=0.49, 17.86, $p=0.2392$), 대학원이상 졸업자는 1.63배(95%CI=0.21, 12.90, $p=0.6429$)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의 참여의지가 6.86배로 높았다(95%CI=1.66, 28.30, $p=0.0077$). 남녀 모두 2014년 참여자의 참여의지가 전년도 참여자에 비해 4.21~4.41배로 월등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2013년: $p=0.0846$, 2014년: $p=0.0297$).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한 후, 참여자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만족도가 증가하였다(남: $\beta=0.003$, $p=0.8141$, 여: $\beta=0.3457$). 남녀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다(남 대졸: $\beta=-0.043$, $p=0.7092$, 남 대학원이상: $\beta=-0.104$, $p=0.4484$, ref=고졸, 여 대졸: $\beta=-0.142$, $p=0.0745$, 여 대학원이상: $\beta=-0.175$, $p=0.1209$, ref=고졸). 남녀 모두 2013년보다 2014년 교육만족도가 높았다(2014 남: $\beta=0.259$, $p=0.0047$, 여: $\beta=0.108$, $p=0.1289$, ref=2013).

<표 11>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교육만족도				
	남			여			남		여		
변수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β	P-value	β	P-value	
연령	1.03	0.81 1.30	0.8339	0.84	0.73 0.96	0.0125	0.003	0.8141	0.007	0.3457	
교육수준	고졸	1.00	-	-	1.00	-	-	Ref	-	Ref	-
	대졸	2.95	0.49 17.86	0.2392	6.86	1.66 28.30	0.0077	-0.043	0.7092	-0.142	0.0745
	대학원 이상	1.63	0.21 12.90	0.6429	- ¹⁾	- ¹⁾	- ¹⁾	-0.104	0.4484	-0.175	0.1209
소득	200만원 이상	0.90	0.18 4.58	0.8943	2.77	0.83 9.24	0.0970	-0.055	0.5706	-0.121	0.1154
	200만원 미만	1.00	-	-	1.00	-	-	Ref	-	Ref	-
결혼상태	미혼	0.43	0.04 4.60	0.4818	0.58	0.16 2.11	0.4075	0.034	0.8705	0.072	0.4584
	기혼	1.00	-	-	1.00	-	-	Ref	-	Ref	-
은퇴여부	예	0.85	0.08 9.54	0.8981	0.48	0.06 4.04	0.5010	0.101	0.4939	-0.113	0.2677
	아니오	1.00	-	-	1.00	-	-	Ref	-	Ref	-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1.15	0.18 7.26	0.8832	0.79	0.28 2.19	0.6501	-0.149	0.1746	-0.101	0.1694
	사회환원	1.00	-	-	1.00	-	-	Ref	-	Ref	-
은퇴전 직종과 일치도	50% 이상	1.06	0.24 4.76	0.9430	0.41	0.14 1.17	0.0966	0.063	0.4864	0.135	0.0649
	50% 미만	1.00	-	-	1.00	-	-	Ref	-	Ref	-
교육연도	2013	1.00	-	0.0846	1.00	-	0.0297	Ref	-	Ref	-
	2014	4.41	0.82 23.79	-	4.21	1.15 15.39	-	0.259	0.0047	0.108	0.1289

*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¹⁾ : 해당 셀 값에 0이 있어 의미가 없는 값으로 표기하지 않음

5. 사회공헌활동 실습 참여자 현황 및 실습만족도

가. 실습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2014년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공헌활동 수요처에서 실습을 마치고 설문에 응답한 272명이 실습만족도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표 12).

응답자 중 남성이 31.6%(86명), 여성이 68.4%(186명)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8.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1%, 대학교 졸업 이상이 62.8% 수준으로 고학력자가 많았다. 기혼자가 대부분(91.2%)이었으며, 응답자의 63.2%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98.5%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2% 정도가 과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사회 활동에 응답자의 83.8%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참여목적이 소득보전 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사회환원(69.1%)으로 답하였으며, 실습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69%가 실습 전에 이루어진 이론교육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응답자의 82.4%가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사회공헌활동 기관(수요처)에서의 실습 수준은 대체적으로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참여자의 약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실습시간은 85.8시간이었다.

<표 12> 실습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평균±표준편차)

변수		실습참여자	
성별	남	86	31.6
	여	186	68.4
연령		58.6	±3.75
교육수준	고졸	101	37.1
	대졸	129	47.4
	대학원 이상	42	15.4
결혼상태	미혼	24	8.8
	기혼	248	91.2
은퇴여부	예	100	36.8
	아니오	172	63.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268	98.5
	나쁨	4	1.5
과거 자원봉사 참여유무	예	196	72.1
	아니오	76	27.9
지역사회 활동 참여	예	228	83.8
	아니오	44	16.2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84	30.9
	사회환원	188	69.1
이론교육만족도	만족	187	68.8
	불만족	85	31.3
교육의 중요도	실습교육	224	82.4
	이론교육	48	17.6
실습난이도	쉬움	212	77.9
	어려움	60	22.1
실습시간		85.8	±40.26
계		272	100.0

나.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다. 참여자들이 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높았다.

성별 실습만족도를 보았을 때, 남성의 만족도는 4.22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4.08점에 비해서도 높았다($p=0.7196$). 실습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대졸자: $\beta=0.1242$, $p=0.1872$, 대학원이상: $\beta=0.2238$, $p=0.0852$, ref=고졸자). 실습 전 이론교육에서 학력이 낮은 사람의 교육만족도가 높았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만족도는 4.14점이고,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의 만족도는 3.25점으로 낮았으며($p=0.01$),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좋음: $\beta=0.8936$, $P=0.0095$, ref=나쁨). 응답자 가운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참여: $\beta=0.0158$, $p=0.8802$, ref=참여경험 없음)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예: $\beta=0.1459$, $p=0.2491$, ref=아니오).

실습 참여 전에 이수한 이론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참여자의 실습만족도(4.36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만족도(3.61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만족: $\beta=0.7058$, $p<0.0001$, ref=불만족). 이러한 결과는 이론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기획 시 참여자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습 응답한 참여자(3.88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쉬움: $\beta=0.2088$, $p=0.0433$, ref=어려움). 실습시간이 길수록 실습만족도도 증가하였다($\beta=0.0022$, $p=0.0384$).

<표 13>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1)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수	실습만족도		P-value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4.22 ±0.68	0.7196
	여	4.08 ±0.80	
교육수준	고졸	4.06 ±0.76	0.1259
	대졸	4.11 ±0.80	
	대학원 이상	4.33 ±0.65	
결혼상태	미혼	3.96 ±0.77	0.6640
	기혼	4.14 ±0.76	
은퇴여부	예	4.14 ±0.63	0.4498
	아니오	4.12 ±0.84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4.14 ±0.76	0.0129
	나쁨	3.25 ±0.96	
과거 자원봉사 참여유무	예	4.17 ±0.77	0.6681
	아니오	4.01 ±0.74	
지역사회 활동 참여	예	4.18 ±0.74	0.2202
	아니오	3.83 ±0.85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4.02 ±0.88	0.9219
	사회환원	4.17 ±0.71	
이론교육만족도	만족	4.36 ±0.66	<.0001
	불만족	3.61 ±0.73	
교육의 중요도	실습교육	4.14 ±0.78	0.6064
	이론교육	4.08 ±0.68	
실습난이도	쉬움	4.20 ±0.74	0.0344
	어려움	3.88 ±0.83	
계		4.13 ±0.77	

* T-test, ANOVA

<표 14> 참여자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2)

변수		실습만족도	
		β	P-value
성별	남	0.0247	0.8142
	여	Ref	-
연령		-0.0017	0.8912
교육수준	고졸	Ref	-
	대졸	0.1242	0.1872
	대학원 이상	0.2238	0.0852
결혼상태	미혼	-0.0607	0.6860
	기혼	Ref	-
은퇴여부	예	-0.0849	0.3761
	아니오	Ref	-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0.8936	0.0095
	나쁨	Ref	-
과거 자원봉사 참여유무	예	0.0158	0.8802
	아니오	Ref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예	0.1459	0.2491
	아니오	Ref	-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0.0044	0.9633
	사회환원	Ref	-
이론교육만족도	만족	0.7058	<.0001
	불만족	Ref	-
교육의 중요도	실습교육	0.0396	0.7151
	이론교육	Ref	-
실습난이도	쉬움	0.2088	0.0433
	어려움	Ref	-
실습시간		0.0022	0.0384

* 선형 회귀분석

다. 성별에 따른 실습만족도

응답자를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참여자 제 특성별(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은퇴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 자원봉사 참여유무,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업 참여목적, 이론교육만족도, 실습난이도 등)로 살펴 본 실습만족도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남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여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남성: $\beta=-0.031$, $p=0.2610$, 여성: $\beta=0.004$, $p=0.7795$).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만족도는 남녀 모두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대졸 남: $\beta=0.080$, $p=0.6251$, 대학원이상 남: $\beta=0.178$, $p=0.4165$, ref=고졸 남, 대졸 여: $\beta=0.154$, $p=0.2023$, 대학원이상 여: $\beta=0.323$, $p=0.0713$, ref=고졸 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답한 사람보다 ‘ 좋음’으로 답한 사람들의 실습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높았다(남 좋음: $\beta=0.054$, $p=0.2462$, ref=남 나쁨, 여 좋음: $\beta=1.267$, $p=0.0157$, ref=여 나쁨).

실습 전 이론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한 남녀 참여자 모두 실습만족도가 높았다(남 만족: $\beta=0.698$, $p=0.0001$, ref=남 불만족, 여 만족: $\beta=0.774$, $p<.0001$, ref=여 불만족). 이론교육보다 실습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한 남성의 경우, 실습교육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실습교육: $\beta=0.084$, $p=0.6335$, ref=이론교육),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실습교육: $\beta=-0.024$, $p=0.8692$, ref=이론교육). 남녀 모두 실습이 ‘수월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실습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남 쉬움: $\beta=0.245$, $p=0.1748$, ref=남 어려움, 여 쉬움: $\beta=0.164$, $p=0.2200$, ref=여 어려움). 남녀 모두 실습시간이 길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았다(남: $\beta=0.003$, $p=0.0580$, 여: $\beta=0.002$, $p=0.2299$).

<표 15> 성별에 따른 실습만족도

변수		실습만족도			
		남성		여성	
		β	P-value	β	P-value
연령		-0.031	0.2610	0.004	0.7795
교육수준	고졸	Ref	-	Ref	-
	대졸	0.080	0.6251	0.154	0.2023
	대학원 이상	0.178	0.4165	0.323	0.0713
결혼상태	미혼	0.072	0.8584	-0.089	0.6064
	기혼	Ref	-	Ref	-
은퇴여부	예	-0.025	0.8740	-0.163	0.2209
	아니오	Ref	-	Ref	-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0.554	0.2462	1.267	0.0157
	나쁨	Ref	-	Ref	-
과거 자원봉사 참여유무	예	-0.111	0.5232	0.134	0.3396
	아니오	Ref	-	Ref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예	0.241	0.2973	0.053	0.7477
	아니오	Ref	-	Ref	-
사업참여목적	소득보전	-0.048	0.7999	0.042	0.7153
	사회환원	Ref	-	Ref	-
이론교육만족도	만족	0.698	0.0001	0.774	<.0001
	불만족	Ref	-	Ref	-
교육의 중요도	실습교육	0.084	0.6335	-0.024	0.8692
	이론교육만족도	Ref	-	Ref	-
실습난이도	쉬움	0.245	0.1748	0.164	0.2200
	어려움	Ref	-	Ref	-
실습시간		0.003	0.0580	0.002	0.2299

* 선형 회귀분석

V.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2013년~2014년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2년간의 참여자의 기본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는데, 1차 설문조사는 이론교육이 끝난 시점이고, 2차 설문조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습기관(수요처)에서 실습을 종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2013년 및 2014년에 이 사업에 참가하여 이론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570명, 614명으로 총 1,184명이었고,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각각 489명, 552명으로 총 1,041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문항에 대해 모두 작성된 1차 설문자료 542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는 2014년 사업 참여자의 설문자료 335건 중 27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참여자의 설문자료를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2014년 실습 만족도 조사 설문문항이 2013년 설문문항 및 내용과 다소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는 실습종료 후 작성하는 설문조사 문항에도 참여자 기본인적사항 및 기본정보를 추가 작성토록 하였고, 기존에 이수한 이론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실습만족도를 분석할 때 2013년 자료를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참여자 설문조사 항목 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육관련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은퇴여부, 경제적 수준 등으로 하고, 교육과 관련된 특성변수를 사업 참여목적, 참여자의 은퇴 전 직종과 사회공헌활동 참여 분야 간의 일치 희망도, 교육연도 등으로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상관분석 및 T-test,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또한 사업연도 및 성별로 구분하여, 참여자 제 특성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가 2011년부터 매년 이루어졌으나, 사업의 결과 및 성과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 또는 실습만족도가 사회공헌활동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영역별 관계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의 어떠한 특성 요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사업 추진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율 제고 및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속성 및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는 각각 94.8%(참여의지 있음), 4.51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참여자의 연령, 교육(학력)수준, 교육연도가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 참여의지는 0.91배 감소하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지속 참여의지가 1.22배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 기혼 참여자의 95.4%가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의지가 있었고, 미혼 참여자의 90.5%에서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혼 참여자의 참여의지가 미혼 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정경희 외(2009)의 연구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인 봉사자가 비봉사자보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사회적 상호관계 측면에서, 베이비부머 및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활동 사업 운영 시, 조직 소속감 및 다른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1.68배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자원봉사실태조사(행정자치부, 2014) 및 정경희 외(2010) 등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자의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노후의 경제적 보장 이외에도 은퇴 후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도 사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후의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회적 역할로서 ‘일’을 필요로 한다. 베이비붐세대 중 다수는 은퇴 후 삶의 의미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조차도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후의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김영숙 외, 2013).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가장 염려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의 유지’(25.9%), ‘노후에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23.2%)의 순이었다(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2011).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이후 정책적 지원방향에서는 소득보전 못지않게 사회공헌활동에도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재 노인세대보다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은 고학력의 베이비붐세대에게 사회공헌활동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사회참여 및 봉사의 의미로 추진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는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는 4.56배, 대학원이상 졸업자는 8.11배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지가 높았다.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행정자치부, 2014)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높아지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고학력층 참여가 가장 높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참여가 가장 낮으며, 소득에서도 고소득층 참여가 높고 저소득층 참여는 낮은 추이가 지속되는 등 교육과 소득수준 별 계층 간 불균등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활동분야 및 배치 적합성,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2010년에 이루어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일부에 불과한 7.3%만이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참여율은 전국단위의 자원봉사참여율이 10.2%(통계청, 2010)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외국의 자원봉사참여율이 20~30% 수준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자 중 40대가 20%, 50대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참가율에도 세 특성별로 차이가 있어 전기 베이비부머(55~59년생)의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이 높으며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단체 참여율이 높았다. 베이비부머의 현재 자원봉사참여율은 낮지만 약 절반 정도는 자원봉사 참여의사를 갖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재해 있는 욕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56%는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참여 의향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향후 참여 의향이 높았다. 한편,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38.3%는 1년에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참여한 비율이 23.9%,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참여해온 비율도 27.9%에 달했다. 이는 현재 베이비부머 가운데 실제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지만, 일단 참여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패턴이 노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 가운데 최소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해 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장기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총 5점 만점에 평균 4.51점

으로 높았으며, 남성이 4.50점, 여성이 4.51점이었다.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사업 참여목적이 지식과 경험의 사회환원인 참여자가 소득보전이 목적인 참여자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았다.

참여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가 대졸 이상 참여자에 비해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참여자의 학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 모두 2013년보다 2014년에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 운영 경험이 축적되는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연도를 2013년도와 2014년도로 구분하여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를 살펴보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3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0.83배로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의지는 1.59배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7.89배, 대학원이상 졸업자는 7.38배로, 참여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도 증가하였다. 참여자의 사업 참여목적에 따른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지식과 재능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참여한 자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참여한 자에 비해 참여의지가 높았으나, 2014년도에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업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높아져 2014년에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변화 등을 통해 참여의지가 높아진 것인지, 이들이 사업 참여시 제공되는 실비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 참여자 교육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42점이고, 2014년 참여자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0.17점 상승한 4.59점이다. 2013년에는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2014년도에는 남성의 교육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두 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만족도 차이는 두 해 모두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2014년도에는 대졸자와 대학원 이상 졸업자 간의 만족도 차이는 거의 없어진 반면, 고졸자와 대졸자 이상 졸업자간의 만족도 차이는 더 커졌다. 아울러,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더 하락했는데, 향후 만족도가 감소한 이유를 추가 분석하고,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이 좀 더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득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보면, 2013년, 2014년 모두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14년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은 교육과 관련한 사업 운영이 한층 성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지만, 고학력 및 고소득자의 교육만족도가 낮은 것은 참여자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을 구분한 상태에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및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교육연도 변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1.03배 증가하였고,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의지는 0.84배로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교육만족도는 저학력자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가 2.77배인 반면, 교육만족도는 저소득자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정진경 외(2009)의 연구에서 노인퇴직자 중 비자원봉사자의 FGI 주요 분석 결과를 통해 베이비붐세대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중산층 퇴직자들이 퇴직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퇴직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 안내처 등을 희망하였다. 이는 노인 세대로 들어서는 베이비붐세대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홍보 및 교육, 사업 운영 담당자의 관리역량 강화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I. 결론

사회공헌활동은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새로운 영역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년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 경험이 4년에 불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의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3년~2014년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의 교육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51점, 실습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참여자의 94.8%(남자 96.4%, 여자 93.8%)에서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와 교육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고졸자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참여의지가 4.56배 및 8.11배로 높았고($p=0.0034$, $p=0.0107$), 교육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대졸: $\beta=-0.1061$, $p=0.0947$, 대학원 이상: $\beta=-0.1578$, $p=0.0584$). 또한 소득이 높은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는 1.68배였고($p=0.2646$), 교육만족도는 고소득자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200만원 이상: $\beta=-0.0988$, $p=0.0936$, ref=200만원 미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 참여자의 학력 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교육 이해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학력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실습의 콘텐츠가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기획·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기관이 사회공헌활동처(수요처)로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교육 및 실습을 운영할 표준화된 매뉴얼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베이비부머들의 참여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 발전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제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베이비부머들에게 이러한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소득보전이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14년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속의지(98.2%)와 교육만족도(4.59점)가 2013년 참여자의 지속의지(91.4%) 및 교육만족도(4.42점) 대비 크게 향상되었는데($p=0.0003$), 이는 사업이 긍정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정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컨소시엄기관 및 수요처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성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활동이 보다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참여자의 실습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높았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건강상태 좋음: 4.14점, 나쁨: 3.25점, $p=0.0129$). 실습에 참가하기 전에 이루어진 1차 이론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실습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만족: 4.36점, 불만족: 3.61점,

$p < .0001$),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습기관의 선정 시, 참여한 베이비부머의 역량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당한 수요처로 연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분석결과, 실습시간이 길수록 실습만족도도 증가했는데($\beta = 0.0022$, $p = 0.0384$), 이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공헌활동 실습기간의 확대 혹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들과 사회공헌활동 수요처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의 교육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 사회공헌활동 참여의지, 사회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보면 이 사업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이 충분한 수준에서 안정화될 때 사업의 정책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50대 베이비붐세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이들이 65세 이후까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령화 시대를 맞은 현실에서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면서,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 파악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실습 콘텐츠 개발·운영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한 베이비붐세대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확보 또는 횡단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참여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연, 김춘경.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2010; 30(4): 1409~1427.
- 강철희.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003; 2(2): 161-205.
- 강현정.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참여 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012; 57: 429-448.
- 고양곤 외.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학지사, 2003.
- 공인복. 자원봉사, 국가발전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책 언론기고문, 2012.
- 김 옥 외. 노화태도척도(AAQ)의 한국 노인 적용을 위한 타당성 연구. 한국노년학회 2012; 32(4): 1181-1197.
- 김동배. 노인 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2000; 25: 137-160.
- 김수영.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김영숙 외.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평가 및 세부추진모형 설계. 보건복지부, 2011.
- 김영숙 외.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사업 평가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
- 김영숙 외.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사업평가 및 연계제고 방안. 보건복지부, 2013.
- 나향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04; 24(1): 53~70.
- 남상호.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Issue&Focus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류기형 외. 자원봉사전. 양서원, 2004.
- 박동준, 이제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개인의 사회적 책임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3.
- 박종삼.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5.

- 박태규.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004; 3(1): 115~143.
- 방하남 외.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 변루나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2011; 31(4): 315~344.
- 보건복지부 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관계부처 합동 계획. 2012.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국민인식조사. 2011.
- 보건복지부.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3.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3.
- 서울대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2011).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2011.
- 손원익, 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2년 키워드로 보는 대한민국 나눔. 2013.
- 이금룡.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4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2011.
- 이소정 외.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소정.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1; 174: 11~18.
- 이소정 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자본 수요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
- 이순자. 노인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윤경 외.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이현기.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10; 50: 263-289.
- 이현우, 문미성, 최용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 경기개발연구원, 2011.
- 정경희 외.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정경희 외.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경희.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1; 187: 40-49.
- 정경희 외.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정경희.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정진경 외.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사)한국자원봉사포럼, 2009.
- 조선주. 개인의 자원봉사 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006; 5(1): 73~99.
- 조선주 외.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조선주 외. 베이비부머의 기부특성과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2013; 12(1): 33~62.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
-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010.
-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2.
- 한경혜 외.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2011; 31(4): 1189~120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년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2014.
-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부 록

부록 1. 참여자 설문조사지(교육완료시점)

부록 2. 참여자 실습설문지(실습완료시점)



부록 1. 참여자 설문조사지(2013년, 2014년)

<1> 참여자 설문지(교육완료시점, 2013)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p>안녕하세요?</p> <p>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자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호됩니다.</p> <p>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 5.</p>
♣ 조사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1번 문항은 ○○님의 은퇴 이전 종사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혹은 이수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1. ○○님께서 은퇴 이전에 종사하신 분야 혹은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종사 분야 선택 후 세부 영역 중 택1)

문 1-1. 종사 분야	문 1-2. 세부 영역	문 1-1. 종사 분야	문 1-2. 세부 영역
1) 행정 및 경영 관리자	① 기업 및 정부 관리자 ② 영업, 마케팅 및 개발 부서 관리자 ③ 기타 ()	6) 법률, 사회 및 문화 전문가	① 법률전문가 ② 사서, 기록보관원 및 큐레이터 ③ 사회 및 종교 전문가 ④ 작가, 언론인 및 어학자 ⑤ 창작 및 공연 예술가 ⑥ 기타 ()
2) 생산 및 전문서비스업 관리자	① 농업·어업 생산 관리자 ② 제조업, 광업, 건축업 및 유통업 관리자 ③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관리자 ④ 전문서비스업 관리자 ⑤ 기타 ()		7) 과학 및 공학 준전문가
3)接客 및 소매, 기타 서비스업 관리자	① 호텔 및 요식업 관리자 ② 소매 및 도매업 관리자 ③ 기타 ()	8) 보건 준전문가	
4) 교육 전문가	①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 교육자 ② 직업교육 교육자 ③ 중등교육 교사, ④ 초등교육 및 취학전 아동 교육자 ⑤ 기타 ()		9) 정보 통신 기술자
5) 경영 및 행정 전문가	① 금융전문가 ② 행정전문가 ③ 영업, 마케팅 및 홍보 전문가 ④ 기타 ()		
10) 기타	()		

※ 아래의 문항부터는 ○○님께서 참여하신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2.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누군가로부터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2. 같이 참여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3. 참가하고 있는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보았다
5.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7. 스스로 찾았다
8. 기타 ()

문3.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자 홍보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 참여자를 통한 권유
2. 비영리 단체(종교단체 포함), 학교, 직장 등 조직을 통한 홍보
3.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 광고
4. 자원봉사센터
5. 인터넷
6. 기타 ()

문4.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본인의 의견을 퍼센트(%)로 표시하며,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과 '소득보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문5. ○○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신다면, 희망하는 활동 빈도와 비용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망 활동 빈도	1일 평균 () 시간	▶ 1주일 평균 () 일
희망하는 비용지원 수준	1일 기준 () 원	

문6. ○○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신다면, ○○님의 은퇴 이전 종사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곳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당란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항목	100%	100미만~75%	75미만~50%	50미만~25%	25% 미만	이전 종사분야와 상관없음
문6-1. 활동 분야의 일치도						
문6-2. 업무의 전문성						

※ 문6-2. 업무의 전문성: 선생님께서 은퇴전 업무적으로 축적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활용되는 정도

문7.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의 의견을 퍼센트(%)로 표시하며,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과 '소득보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문8. ○○님은 교육 이후의 일정(사회공헌활동 실습)을 모두 수료할 계획이십니까?

1. 예 → **문9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문8-1로 가십시오**

문8-1. [문8.에서 '2. 아니오'에 표시했을 경우]

○○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모두 수료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2. 가족 문제, 건강 악화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3. 교육 및 실습 일정이 맞지 않아서
4. 교육 및 실습 지원비용이 적어서
5. 은퇴이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분야가 없을 것 같아서
6. 기타 ()

문9. ○○님께서 참여자 모집시 작성하셨던 참여신청서 상에 표시하신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희망하시는 활동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희망영역 선택 후, 해당 영역의 희망활동 중 택1).

문9-1. 희망영역	문9-2. 희망활동
1) 교육상담형	① 상담 (동년배 상담, 청소년 상담 등)
	② 강의 (건강,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전문분야)
	③ 교육 (외국어 교육, 서예, 컴퓨터 등)
2) (비영리)기관운영지원형	① 기관을 위한 컨설팅 (인사, 노무, 세무, 마케팅, 네트워킹 등)
	② 기관 이용자를 위한 컨설팅 (법률, 재무, 창업 등)
3) 지역사회개발형	① 모금기획 및 관리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③ 후원연계 및 후원물품 관리
	④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환경보호
	⑤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문10. ○○님은 교육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10-1	공정적 ← 점수 부정적				
	강의내용이 강의주제에 적절하였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1-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1-2. 변화관리					
문10-1-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2	교육생의 요구도를 잘 파악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2-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2-2. 변화관리					
문10-2-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3	강사의 강의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었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3-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3-2. 변화관리					
문10-3-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4	교재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4-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4-2. 변화관리					
문10-4-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5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5-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5-2. 변화관리					
문10-5-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6	전반적으로 본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셨습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6-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6-2. 변화관리					
문10-6-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7	개선사항 및 기타 의견				
문10-7-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7-2. 변화관리					
문10-7-3. 지역사회와 나의역할					

문10-8. [문10-6에서 한 과목 이상이라도 3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1.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2. 다른 참여자들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3. 교육을 하는 기관(단체)과 기본적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4.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5. 사회공헌활동과 무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6. 교육 일정이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7. 기타 ()

문10-9. ○○님께서 교육을 받으신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한국자원봉사문화
3.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4. 부산복지개발원
5. 의정부실버문화센터

문10-10. ○○님이 희망하시는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	▶ 일 평균 ()시간
------	--------------

문11. ○○님이 희망하시는 실습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월	▶ 1개월 평균 ()일	▷1일 평균 ()시간
-------	---------------	--------------

문12. ○○님께서 참여하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교육과 실습 이후 사회공헌활동 지속을 위해 제안하고 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사업 참여기관의 다양화
2. 사업 일정의 조정(교육 및 실습 시간의 조정 등)
3. 교육(공통소양과정 및 유형별 필수과정) 내용의 조정
4. 참여자와 활동처의 직원이 직접 만나는 자리 마련을 통한 정보 교환
5. 연계 및 이후 활동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6. 사업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주선(자조모임 등)
7. 기타 ()

문13. 현재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사이트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p>※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건강, 소득, 고용 등에 관한 정보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본 사업 참여자 및 활동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 - 베이비부머를 위한 취업 정보, 창업, 귀농, 자원봉사, 연금, 건강 등 관련 정보 통합제공
--

1.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자조모임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4. 보다 다양한 활동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

[인적 사항] : 14번 ~ 19번 문항

문14.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1. ○○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문14-2. ○○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문14-3. ○○님이 취득하신 정규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졸업)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전문학교(졸업)
5. 대학교(졸업)
6. 대학원 석사(졸업)
7. 대학원 박사(졸업)
8. 기타 ()

문14-4. ○○님이 은퇴를 하신 시기 혹은
은퇴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도로
표시, 예 : 2011년 등)
()년

문14-5. ○○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까지 표기해
주십시오.)
()시/도 ()구/시
예)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문15. 가구원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1. ○○님의 현재 혼인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1. 혼인 중
2. 별거/이혼/사별
3. 결혼한 적 없음

문15-2. 배우자 외의 동거 가구원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명

문15-3. ○○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동거 혹은 비동거 모두
포함)
()명

문16.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1. ○○님께서는 최근 1년 동안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2. 보통이다
3. 나쁘다

문16-2. ○○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 응답 가능)

1. 고혈압
2. 당뇨병
3. 암(악성종양) - 원발부위 포함
4. 폐질환
5. 간질환
6. 심장질환
7. 뇌혈관질환
8. 정신과적질환
9.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10. 기타 ()
11. 없음

문16-3. ○○님께서 예상하는 본인의 기대 수명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문17.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1. ○○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종교 없음
2. 개신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문17-2. ○○님과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7-3으로 가십시오**
2. 없다 → **문17-4으로 가십시오**

문17-3. [문17-2에서 '1.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1달 기준 ()회

문17-4. ○○님께서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단체를 모두 선택 후, 1달 기준 참여 횟수를 적어주세요.

참여 단체	참여여부	1달 기준 참여 횟수
1. 종교모임	① 예 ② 아니오	회
2. 친목모임 (계모임, 노인정 등)	① 예 ② 아니오	회
3.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① 예 ② 아니오	회
4. 동창회/향우회/종친회	① 예 ② 아니오	회
5. 자원봉사	① 예 ② 아니오	회
6.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① 예 ② 아니오	회
7.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회
8. 없음		

문18. 소득 및 자산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8-1. ○○님의 은퇴 이전 월 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 모두 포함)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350만원 미만
8. 350~400만원 미만
9. 400만원 이상

문18-2. ○○님의 은퇴 이전 월 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3. ○○님의 은퇴 이후 현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 모두 포함)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4. ○○님께서 현재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금전적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5. ○○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

()만원

문18-6. ○○님께서 현재 지닌 부채는 얼마입니까?

()만원

문18-7. ○○님은 현재 추가적인 근로 소득을 원하십니까?

1. 원한다
2. 원하지 않는다

문19.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1. ○○님께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상
2. 상하
3. 중상
4. 중하
5. 하상
6. 하하

문19-2. ○○님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만족한다
2. 보통이다
3. 만족하지 않는다

문19-3. 향후 ○○님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좋아질 것이다
2. 변화 없다
3. 나빠질 것이다

문19-4. ○○님은 향후 몇 년까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6~10년
3. 11~15년
4. 15년 초과

문19-5. ○○님께서 본인의 삶을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만족한다
2. 보통이다
3. 만족하지 않는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참여자 설문지(교육완료시점, 2014)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5.

♣ 조사주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02-6007-9168)

문1. 귀하께서 은퇴 이전에 종사하신 분야 혹은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종사 분야 선택 후 세부 영역 중 택1)

문 1-1. 종사 분야	문 1-2. 세부 영역	문 1-1. 종사 분야	문 1-2. 세부 영역
1) 행정 및 경영 관리자	① 기업 및 정부 관리자 ② 영업, 마케팅 및 개발 부서 관리자 ③ 기타 ()	6) 법률, 사회 및 문화 전문가	① 법률전문가 ② 사서, 기록보관원 및 큐레이터 ③ 사회 및 종교 전문가 ④ 작가, 언론인 및 어학자 ⑤ 창작 및 공연 예술가 ⑥ 기타 ()
2) 생산 및 전문서비스업 관리자	① 농림어업 생산 관리자 ② 제조업, 광업, 건축업 및 유통업 관리자 ③ 정보 통신기술 서비스업 관리자 ④ 전문서비스업 관리자 ⑤ 기타 ()	7) 과학 및 공학 준전문가	① 물리학 및 공학 기술자 ② 광업, 제조업 및 건축업 감독관 ③ 공정관리 기술자 ④ 생명과학 기술자 및 관련 준전문가 ⑤ 선박,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자 ⑥ 기타 ()
3)接客 및 소매, 기타 서비스업 관리자	① 호텔 및 요식업 관리자 ② 소매 및 도매업 관리자 ③ 기타 ()	8) 보건 준전문가	① 의료 및 제약 기술자(의사, 약사 포함) ②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 ③ 전통 및 보완(대체) 준전문가 ④ 수의학 기술자 및 보조원 ⑤ 기타 ()
4) 교육 전문가	①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 교육자 ② 직업교육 교육자 ③ 중등교육 교사, ④ 초등교육 및 취학전 아동 교육자 ⑤ 기타 ()	9) 정보 통신 기술자	① 정보통신 기술 운영자 및 사용자 지원기술자 ② 통신 및 방송 기술자 ③ 기타 ()
5) 경영 및 행정 전문가	① 금융전문가 ② 행정전문가 ③ 영업, 마케팅 및 홍보 전문가 ④ 기타 ()		
10) 기타	()		()

문2.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알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누군가로부터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2. 같이 참여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3. 참가하고 있는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보았다
5.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7. 기타 ()

문3.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자 홍보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 참여자를 통한 권유
2. 비영리 단체(종교단체 포함), 학교, 직장 등 조직을 통한 홍보
3. 라디오를 통한 홍보
4. 신문(주요 일간지) 광고
5. 지방자치단체(시·구청,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홈페이지, 포스터 등)
6.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홍보
7. 인터넷을 통한 홍보
8. 기타 ()

문4.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본인의 의견을 퍼센트(%)로 표시하며,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과 '소득보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문5. 귀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기간 종료 후 비영리기관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희망하는 활동 빈도와 비용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망 활동 빈도	1일 평균 ()시간	▶ 1주일 평균 ()일
희망하는 비용지원 수준	1일 기준 ()원	

문6. 귀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기간 종료 후 비영리기관에서 활동하신다면, 귀하의 은퇴 이전 종사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곳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당란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항목	100%	100미만~75%	75미만~50%	50미만~25%	25% 미만	이전 종사분야와 상관없음
문6-1. 활동 분야의 일치도						
문6-2. 업무의 전문성						

※ 문6-2. 업무의 전문성: 선생님께서 은퇴전 업무적으로 축적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활용되는 정도

문7.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의 의견을 퍼센트(%)로 표시하며,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과 ‘소득보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문8. 귀하께서는 교육 이후의 일정(사회공헌활동 실습)을 모두 수료할 계획이십니까?

1. 예 → 문9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문8-1로 가십시오

문8-1. [문8.에서 ‘2. 아니오’에 표시했을 경우]

귀하께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모두 수료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2. 가족 문제, 건강 악화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3. 교육 및 실습 일정이 맞지 않아서
4. 교육 및 실습 지원비용이 적어서
5. 은퇴이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분야가 없을 것 같아서
6. 기타 ()

문9. 귀하께서 참여자 모집시 작성하셨던 참여신청서 상에 표시하신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희망하시는 활동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희망영역 선택 후, 해당 영역의 희망활동 중 택1).

문9-1. 희망영역	문9-2. 희망활동
1) 교육상담형	① 상담 (동년배 상담, 청소년 상담 등)
	② 강의 (건강,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전문분야)
	③ 교육 (외국어 교육, 서예, 컴퓨터 등)
2) (비영리)기관운영지원형	① 기관을 위한 컨설팅 (인사, 노무, 세무, 마케팅, 네트워킹 등)
	② 기관 이용자를 위한 컨설팅 (법률, 재무, 창업 등)
3) 지역사회개발형	① 모금기획 및 관리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③ 후원연계 및 후원물품 관리
	④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환경보호
	⑤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문10. 귀하께서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10-1	긍정적 ← 점수 부정적				
	강의내용이 강의주제에 적절하였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1-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1-2. 변화관리					
문10-1-3. 기관fair					
문10-2	교육생의 요구도를 잘 파악하여 강의를 이루어졌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2-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2-2. 변화관리					
문10-2-3. 기관fair					
문10-3	강사의 강의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었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3-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3-2. 변화관리					
문10-3-3. 기관fair					
문10-4	교재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4-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4-2. 변화관리					
문10-4-3. 기관fair					
문10-5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5-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5-2. 변화관리					
문10-5-3. 기관fair					

문10-6	전반적으로 본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문10-6-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6-2. 변화관리					
문10-6-3. 기관fair					
문10-7	개선사항 및 기타 의견				
문10-7-1.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문10-7-2. 변화관리					
문10-7-3. 기관fair					

문10-8. [문10-6에서 한 과목 이상이라도 3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말씀해주시요.

1.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2. 다른 참여자들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3. 교육을 하는 기관(단체)과 기본적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4.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5. 사회공헌활동과 무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6. 교육 일정이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7. 기타 ()

문10-9. 귀하께서 교육을 받으신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10-10.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일	▶ 일 평균 ()시간
-------------------	-------------------------

문11.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실습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개월	▶ 1개월 평균 ()일	▷1일 평균 ()시간
--------------------	--------------------------	-------------------------

문12.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교육과 실습 이후 사회공헌활동 지속을 위해 제안하고 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사업 참여기관의 다양화
2. 사업 일정의 조정(교육 및 실습 시간의 조정 등)
3. 교육(공통소양과정 및 유형별 필수과정) 내용의 조정
4. 참여자와 활동처의 직원이 직접 만나는 자리 마련을 통한 정보 교환
5. 연계 및 이후 활동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6. 사업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주선(자조모임 등)
7. 기타 ()

문13. 현재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www.activebb.kr)

-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건강, 소득, 고용 등에 관한 정보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본 사업 참여자 및 활동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
- 베이비부머를 위한 취업 정보, 창업, 귀농, 자원봉사, 연금, 건강 등 관련 정보 통합제공

1.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자조모임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4. 보다 다양한 활동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

[인적 사항] : 14번 ~ 19번 문항

문14.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문14-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문14-3. 귀하께서 취득하신 정규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졸업)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전문학교(졸업)
5. 대학교(졸업)
6. 대학원 석사(졸업)
7. 대학원 박사(졸업)
8. 기타 ()

문14-4. 귀하께서 은퇴를 하신 시기 혹은
은퇴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
도로 표시, 예 : 2011년 등)
()년

문14-5.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까지 표기해 주십시오.)
()시/도 ()구/시
예)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양시

문15. 가구원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1. 혼인 중
2. 별거/이혼/사별
3. 결혼한 적 없음

문15-2. 배우자 외의 동거 가구원 수를 기
입하여 주십시오.

()명

문15-3.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동거 혹은 비동거 모두
포함)

()명

문16.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1.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2. 보통이다
3. 나쁘다

문16-2. 귀하께서 예상하는 본인의 기대
수명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문17.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질문입
니다.**

문17-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종교 없음
2. 개신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문17-2. 귀하와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1. 있다→ 문17-3으로 가십시오
2. 없다→ 문17-4으로 가십시오

문17-3. [문17-2.에서 '1.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1달 기준 ()회

문17-4. 귀하께서는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단체를 모두 선택 후, 1달 기준 참여 횟수를 적어주세요.

참여 단체	참여여부	1달 기준 참여횟수
1. 종교모임	① 예 ② 아니오	회
2. 친목모임 (계모임, 노인정 등)	① 예 ② 아니오	회
3.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① 예 ② 아니오	회
4. 동창회/향우회/종친회	① 예 ② 아니오	회
5. 자원봉사	① 예 ② 아니오	회
6.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① 예 ② 아니오	회
7.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회
8. 없음		

문18. 소득 및 자산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8-1. 귀하의 은퇴 이전 월 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 모두 포함)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350만원 미만
8. 350~400만원 미만
9. 400만원 이상

문18-2. 귀하의 은퇴 이전 월 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3. 귀하의 은퇴 이후 현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보험소득, 사회보장소득, 자녀 혹은 친척으로부터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등 모두 포함)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4. 귀하께서 현재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금전적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250만원 미만
6. 250~300만원 미만
7. 300만원 이상

문18-5. 귀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 모두 포함)

()만원

문18-6. 귀하께서 현재 지닌 부채는 얼마
입니까?

()만원

문18-7. 귀하께서는 현재 추가적인 근로
소득을 원하십니까?

1. 원한다
2. 원하지 않는다

문19.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1. 귀하께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1. 상상
2. 상하
3. 중상
4. 중하
5. 하상
6. 하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참여자 실습설문지(2014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설문지(참여자유)

설문안내

- 본 설문지는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관명 : _____

● 실습기관명 : _____

● 사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1. 실습기관에 배치되기 전 사전(기본)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실습참여에 대한 만족도

1.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실습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기에 적절하였습니까?					
2. 실습을 위한 직무교육 시간은 충분하였습니까?					
3. 실습을 위한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4. 직원들은 실습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5. 실습경험이 사회공헌활동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6.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실습에 대한 의견

1. 귀하의 실습기간 및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총 실습기간 () 개월
- ② 총 실습시간 () 시간
- ③ 1일 평균 () 시간

2. 귀하는 실습경험이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항 4로 ② 아니오 → 문항 3으로

3. 실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내가 기대했던 실습 내용과 다름
- ② 내가 원했던 기관이 아님
- ③ 실습기간이 짧음
- ④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⑤ 실습담당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⑥ 기타 ()

4. 실습이 어려웠습니까?

- ① 수월했음 → 문항 6으로 ② 어려웠음 → 문항 5로

5. 실습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다른 실습생들과 잘 맞지 않았음 ② 실습내용이 신체적으로 힘들었음
- ③ 실습내용이 어려웠음 ④ 집과 거리가 멀었음
- ⑤ 실습기관 담당자나 직원들과 의사소통
- ⑥ 기타: _____

6. 교육이나 실습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생각

1. 최초에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2. 실습을 마친 현재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식과 경험의 사회 환원 (%) + 소득 보전 (%) = 100%

3.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참여자 모집의 홍보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참여자를 통한 권유
- ② 비영리 단체(종교단체 포함), 학교, 직장 등을 통한 홍보
- ③ 라디오 광고
- ④ 주요 일간지(신문) 광고
- ⑤ 시청·구청,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 ⑥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홍보
- ⑦ 인터넷 광고
- ⑧ 기타: _____

4. 만약 귀하가 본 사업 종료 후에 비영리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신다면, 귀하의 은퇴 이전 종사분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완전 일치	상당부분 일치	일부 일치	전혀 불일치	어떤 곳이든 상관없음
활동 분야의 일치도					
업무의 전문성					

● 자원봉사활동

1. 귀하는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본 사업 참여 포함)?

- ① 본 사업외에는 활동하지 않았다 ② 본 사업외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③ 본 사업외에도 가끔 활동했다 ④ 본 사업외에도 많이 활동하였다

1-1. 만약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지난 1년간 본 사업 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총 (시간)

2.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맞음	매우 맞음
1.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2. 현재 하고 계신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3. 현재 하고 계신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외에 다른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4. 귀하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을 찾고 계십니까?					
5. 현재 하고 계신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생각이 있습니까?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생각

1. 사회공헌활동의 실태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맞음	매우 맞음
1. 지역사회 기관/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2. 지난 1년간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지역사회의 모임(계, 등산반 각종 모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편입니까?					
4.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의 자문위원회 등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5. 지난 몇 년간 지역에서 문제발생 시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6.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습니까?					

7.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 대해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 나의 의견을 말하는 편입니까?					
8.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고자 하시는 편입니까?					
9. 아무도 귀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챙겨서 하시는 편입니까?					
10. 귀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11. 밤에 동네를 거닐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귀하의 동네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13. 귀하가 사는 동네가 내 가정처럼 느껴지십니까?					
14. 집 밖에서 누군가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그 사람을 집에 들여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15. 귀하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귀하에게 급한 일이 생겨 외출해야 할 때 차를 태워줄 이웃이 있습니까?					
17. 지난 일주일 동안 이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18. 귀하는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2. 귀하가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희망하는 활동 빈도와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망 활동 빈도	1일 평균 ()시간	▶ 1주일 평균 ()일
희망하는 지원비용	1일 기준 () 원	

3. 귀하가 원하시는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희망활동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희망 영역을 선택 후, 희망활동 중 택 1).

사회공헌활동 희망영역	희망활동
교육상담형	① 상담 (동년매 상담, 청소년 상담 등) ② 강의 (건강,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전문분야) ③ 교육 (외국어 교육, 서예, 컴퓨터 등)
(비영리)기관 운영지원형	① 기관을 위한 컨설팅 (인사, 노무, 세무, 마케팅, 네트워킹 등) ② 기관 이용자를 위한 컨설팅 (법률, 재무, 창업 등)
지역사회개발형	① 모금기획 및 관리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③ 후원연계 및 후원물품 관리 ④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환경보호 ⑤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4. 귀하가 희망하는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시간	▶ 일 평균 ()시간
--------------------	-------------------------

5. 귀하가 희망하는 실습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 ()개월	▶ 1개월 평균 ()일	▷1일 평균 ()시간
--------------------	--------------------------	-------------------------

● 인적 사항

1. 연령 : 만 _____ 세

2. 성별 : ① 남 ② 여

3. 학력(중퇴는 졸업으로 간주함)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전문대졸 포함) ⑤ 대학원 이상

4. 혼인상태

① 혼인 중 ② 별거/이혼/사별 ③ 결혼한 적 없음

5. 가족 상황

번호	관계	나이(만)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동거여부
1						
2						
3						
4						
5						
6						
7						
8						
9						
10						

※ 가족은 (시, 처)부모와 (미혼, 기혼)자녀를 모두 포함함

6. 건강상태

- ① 매우 좋음 ② 좋은 편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쁨

6-1. 진단받은 질병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_____

7. 과거 직업 유무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7-1. 과거 직업(가장 오래 일한 직업)

-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농림어업직 ⑤ 공무원
 ⑥ 연구직 ⑦ 자유/전문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일용직
 ⑪ 기타()

※ ①~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⑪기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2. 과거 직업(퇴직 전 마지막 직업)

-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농림어업직 ⑤ 공무원
 ⑥ 연구직 ⑦ 자유/전문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일용직
 ⑪ 기타()

※ ①~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⑪기타에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3. 퇴직 이후 현재까지 소요기간 (년 개월)

8. 퇴직 전 월평균 소득(3년 평균)

- ① 50만원 미만 ② 50 ~ 100만원 미만 ③ 100 ~ 200만원 미만
 ④ 200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9. 현재 (동거)가족 모두의 월평균 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effect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the
satisfaction of training program
: Results of evaluating support programs for social
contribution among baby boomers**

Eun Hee Je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The social concern about baby boomers in Korea, those who were born in between 1955 and 1963, is greatly being built up, in company with their retirement. Baby boomers accounting for 14.6% of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has faced or is facing the time when they should retire from their jobs. The social cost paid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e counterplan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caused by them are carried out, but they have been ineffective ye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cruiting baby boomers, training, and supporting baby boomers to mak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NPO, since 2011.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upport program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baby boomers and utilize for policy making by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nd the satisfaction of training program.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542 participants from 2013 to 2014, who provided all personal information and answered all questions of the survey on basic education, among program participant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training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was very high with 4.51 points out of 5 and the practice satisfaction was 4.13 points out of 5. It was analysed that 94.8%(male 96.4%, female 93.8%) of participants had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the training satisfaction by education level showed a highl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llege graduates and graduate school graduates was 4.56 times($p=0.0034$) and 8.11 times($p=0.0107$)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graduates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it was analyse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training satisfaction(college graduates: $\beta=-0.1061$, $p=0.0947$, graduate school graduates: $\beta=-0.1578$, $p=0.0584$, ref=high school graduates).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 theory education showed higher satisfaction of practice than those who were dissatisfied(satisfied: $\beta=0.7057$, $p<0.0001$, ref=dissatisfied). Si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variety of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in future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uch as education level, training and practice contents and standardized manuals for operating them should be developed. The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the training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2014 was higher than those of participants in 2013. It means that the programs develop positivel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support program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baby boomers as a continuous program, it is essential to develop training and practice contents customized b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reate significant outcom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baby-boomers' characteristics and the construction of stable delivery system. In addition, further continuous studie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y obtaining sufficient long-term time series data and cross-sectional data in the long term.

key words : Baby boomers, Continuity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raining satisfaction